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모공경은 기독교의 중요한 계명이고,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버이를 공경하십시오.
- 다음 주일(18일)은 늘푸른사랑방에서 주일공동예배를 준비합니다. 25일에는 젊은이사랑방에서 주일공동예배를 준비합니다.
- 종합교육과정을 과정별로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18일) 오후에 탁구대회 예선전을 진행합니다. 결선은 25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사랑방 연합찬양모임이 1시30분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홈커밍데이 행사가 15일(목)에 학교에서 있습니다.
- 어린이학교 5월여행이 14일~15일, 서울대공원자연캠프장에서 있습니다.

제 42 - 19 호

2025년 5월 1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임상희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한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아버이주일을 생각하며 .

해마다 찾아오는 아버지날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나이를 먹어가고,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며 점점 연약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이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국민학교 시절,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어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은 그 작은 정성 하나에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물질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풍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늘 크고 따뜻했고, 그 사랑은 조건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희생적인 것이었는지를 조금씩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단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시간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묵묵히 헌신해 주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등에 점점 연륜이 쌓이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을 보며, 어릴 적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본능을 거슬러,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기에 더욱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을 단순한 도리로 여기지 않고, 신앙의 중요한 실천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한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출애굽기 20:12)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울 사도도 이를 강조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6:1-3)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사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숙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태도는 단지 도덕적인 자세가 아니라, 신앙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할 순종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지 어릴 적에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삶의 전 생애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는 점점 감사의 표현이 사라져가고,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주일만큼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를 전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기도 한 줄, 따뜻한 손길 하나에도 부모님의 마음은 깊이 위로받고 기쁨을 얻으십니다.

올해 아버지주일에는 우리 마음에 담긴 사랑과 존경을 부모님께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로 이어지고 다음 세대가 본받는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말씀

“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

<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369, 488 / 330

기도 :

성경 : 마가복음 3장

제목 : 예수님의 사역과 심해지는 반대

1. 안식일의 목적 <1-6>

- 1)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5>
- 2) 율법(형식)보다 본질(정신)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 3) 형식보다 본질을, 일과 사람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2.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 <막3:13-19>

-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다.<14-15>
- 2) 제자를 부르신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3) 균형있는 제자의 삶을 살자.(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파, 사람 섬김)

3.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막3:20-30>

- 1)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22>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30>
- 2)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29>
성령을 모독 = 성령(하나님,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하는 죄
- 3)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수용하십시오.

마음으로 주는 선물, 몸으로 주는 선물

얼마 전에 6살 꾸러기 친구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축하와 축복을 받는 날은 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꾸러기친구들부터 어린이, 멋쟁이는 생일이면 친구들이 옆에서 뜨겁게 생일축하를 해줍니다. 나도 친구들과 학교를 다니며 서로 축하해주고, 축하받았는데 이제는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어진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보기 힘들어진 만큼 어릴 때 축하보다 지금의 축하는 훨씬 마음이 담깁니다. 경쟁사회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큰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꾸러기들은 생일인 친구를 위해 크게 2가지 선물을 합니다. 바로 마음으로 주는 선물과 몸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놓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생일자만을 위해 만든 특별한 카드와 안아주며 뽀뽀하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나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는데 6살 친구가 쑥스러워 하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몸으로 주는 선물은 꽃가마와 이불썰매, 꽃마차 밀어주기가 있습니다. 꽃가마는 손목을 잡고 만드는 기마로 아이들 힘이 많이 필요한 선물입니다. 다른 선물들도 있는 힘껏 빨리 달리며 친구를 즐겁게 해주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모든 선물을 받은 친구는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사랑한다는 축복의 말을 끝으로 생일잔치를 마칩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눈에 안보이기에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작은 꾸러기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생일인 친구를 위해 힘들지만 열심히 사랑의 선물을 줍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의 표현은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몸으로,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힘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 우리 사랑방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인도자 : 정태일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신명기 5 : 16 인도자
4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다함께

578, 275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가족,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십시오”**

에베소서 5 : 21-6 : 9 설교자
199 따뜻한사랑방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79 다함께

410(3)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석용범 박영선 / 봉헌위원 : 윤호중 / 꽃꽂이 : 김영화
듣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을 위한 기도에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가족,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5:1-3:21에서 교회론을 말하고, 그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새사람, 건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후반부<4:6>는 올바른 교회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교회생활, 개인생활,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러분은 서로 순종하십시오."입니다.<5:21>

가족,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공경'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

아버이를 공경하십시오. 사랑방공동체는 3세대가 함께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날을 맞아 자녀 된 여러분은 아버이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른들을 인정하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어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십시오. 어른들에게 역할을 맡기십시오. 가정과 교회에서 훈련하여 사회를 변화시키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정연갑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꾸러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웃음꽃을 잔뜩 보이며 꾸러기들이 아침부터 뛰어다닙니다. 빨리 놀고 싶다고 얼굴에 써져 있어서 아이들을 보자마자 선생님도 웃음이 나옵니다.

5월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꾸러기들이 정성껏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카네이션을 멋지게 접어서 붙이고, 꾸미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카드 안에는 부모님을 멋지게 그리기도 하고, 가족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쓴 편지가 있는데 같이 놀자, 맛있는 거 사주겠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들에 대한 감사, 엄마, 아빠 사랑한다 등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꾸러기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카드를 만드는 과정과 정성을 보며 너무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꾸러기 밭에 가지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밀싹에 물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밀싹이 쑥쑥 많이 자랐습니다.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는 축복의 말을 해줘서 잘 자란 것 같습니다. 딸기밭에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곧 만날 딸기들을 위해 잡초를 많이 뽑습니다. 꾸러기는 놀기에 바쁘지만, 밭일 때문에도 바쁩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한 주간 캠프 조모임에서 식단도 짜서 재료를 나눠야 하고, 부모님께 편지도 써야하고, 선생님들 몰래 스승의 날 뭐 할 건지 의논도 해야 하고, 생일카드도 써야하고, 5월 말씀 외우기 등... 쉬는 시간이면 옹기종기 모여 의논하기에 여념이 없고 연휴를 보내고 와서 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트램펄린 개장 첫 친구를 위해 예쁜 풍선을

달아서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해 주었고, 간식시간 컵라면 권을 받은 친구는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답니다.

금요일엔 성교육이 있었습니다. 1학년은 '우리 몸은 소중한'라는 주제로 책을 보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고학년은 4가지의 주제로 성교육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성교육을 위해 오신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경청을 잘 한다고 칭찬도 받았답니다.

LTSS 지난 주 시간부터 3주간 동안 말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금요일엔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말을 전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 하지만 좀 더 예의바른 말과 행동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5/14(수)~15(목)까지 1박2일 동안 서울 대공원 캠프장에서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이번 주장은 멋쟁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가정학습기간이었습니다. 도보여행의 고단함을 풀고, 평소에 가지기 어려운 긴 기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텐트와 침낭대신 이불과 배개, 봄비와 바람 대신 지붕 달린 집, 손도 많이 가고 타거나 맛없을 걱정이 없는 집밥까지... 그런 집에서의 생활을 행복하다는 듯이 입에 담았던 멋쟁이들은, 아마도 그것들을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곳으로의 여행, 숙제 해결 및 공부, 친척과의 만남 등 등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끼어서 다양한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짐작합니다. 도보여행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소감문들도 써왔겠지요? 휴식의 끝이란 아쉬움을 던고서, 다시 학교생활에 만날 얼굴들이 무척 기대됩니다.

< 교사 : 이어진 >

나의 일상 (2)

얼마 전, 우연히 10년 전 '나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주보 글을 다시 읽게 되었다. 그때는 셋 아이들을 정신없이 키우느라 '애 네가 언제 다 클까'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느새 아이들은 하나둘씩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는 아쉬움만이 남아 마음 한켠을 채운다. 요즘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천천히 크면 안 될까? ...'

올해 3월부터는 2호와 3호도 멋쟁이로 떠났고, 1호는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 주말이면 더 바빠진다. 빨래하고, 밥하고... 여전히 '엄마'라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것처럼, 앞으로의 10년은 더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아끼며 지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셋 다 이곳에서 태어나서일까, 떠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돌아온 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아이들은 날마다 다르게, 건강하고 즐겁게 잘 자라고 있다. 주말이면 집에 돌아와 신앙 이야기, 학교생활, 인생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아이들의 미래 계획안에 늘 '사랑방공동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참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진다.

아이 셋을 데리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하다고 종종 듣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는 고향이 되어주고, 나에게도 친정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다. 덕분에 큰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느긋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이 어려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설교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건강관리도 이제는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조금씩 운동을 시작했다. 주중에는 일도 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공부도 얼른 마무리하고 싶다.....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 오늘도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저경하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218장, 96장

성 경 : 에베소서 2장 14~22절

말 씬 : 평화로 오신 그리스도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인도-파키스탄 충돌>

7일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편자브주(州) 등 6곳에 인도군이 미사일을 발사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8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이어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없이 있는 마을>

세상의 가치보다는 성령을 따르는 마음

예수를 따라 제자로 하나되는 마을

생명과 평화를 꿈꾸는 대안적 마을

마을밥상, 마을예배, 더불어 배움, 보육품앗이, 마을잔치, 몸살이, 마을학교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 종합교육과정을 위해.

* 아프신 분들

<생활공동체 소식 >

어버이날을 맞아 휴일을 이용해 공동식구들도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찾아뵙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비 소식에 고추, 토마토 등 여러 작물들을 심었습니다. 십자가 동산에 잔디를 까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애써주신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 장영미 전도사 >